

“무주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대석 의원, 군정질문서
이한승 의원, 예비비 문제 지적

무주군의회(의장 유승열)는 12일 제 253회 정례회에서 황정수 무주군수 등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이대석·이한승 의원이 군정 현안에 대한 군정질문을 펼쳤다. 이날 군정질문은 무주군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대책추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반딧불축제 개선방향,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신규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이 이어졌다.

53%에 이르는 상수도 누수율을 예로 들며 무주군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년이 지난 반딧불축제를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거듭나게 위한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 뿐만 아니라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 등 타당성이 결여된 대규모 신규투자 사업의 난립에 대해서도 날선 질문을 계속했다. 이한승 의원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문제가 된 예비비 등 예산사정 등에 따져 묻고, 반딧불 한우베스트 지



이대석 의원 이한승 의원

원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영세 소상공인 지원 대책, 학생대리도 시범단 운영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황정수 군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의료원, QI경진대회 ‘최우수상’

진안군의료원(원장 조백환)은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개최된 지역거점공공병원 “QI(의료질 향상)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 QI경진대회는 전국 33개 지방의료원과 5개 적십자병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렸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역거점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의료의 질 향상(QI) 활동 우수사례’에 공모, 총 38개 주제가 예선을 거쳐 최종 10개 팀이 본선에 선정돼 최종 경합을 했고 진안군의료원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최우수상을 받은 진안군의료원은 ‘Surgical Safety Checklist(수술 안전 점검표) 시행 활동’이라는 주제로 환자 안전에 관한 직원들의 인식을 높이고 개선활동을 추진해 향후 지속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진안군의료원은 2015년 12월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2015년 지역거점공공병원 QI경진대회’에서 ‘응급의무기록 사전점검을 통한 NEDIS(국가응급진료정보망)충실도 향상 활동’이라는 주제로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 지방자치경쟁력 ‘전국 3위’

공공자치평 평가서 郡 단위 세 번째 경쟁력 갖춰... 상위 10위 내 완주군 유일

완주군의 지방자치경쟁력이 전국 세 손가락 안에 꼽혔다. 12일 군에 따르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사장 박우서)은 최근 전국 22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6년도 제21회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지수(KLCI)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완주군의 종합경쟁력은 1000점 만점에 525.40점을 기록, 전국 82개 군(郡) 중에서 울산 울주군(572.03점), 부산 기장군(542.02점)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완주군의 경쟁력 지수는 전국 기초군의 평균점수인 460.76점을 훨씬 웃돌았다. 전국 226개 기초 자치단체 중 시, 군, 구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종합경쟁력 지수 조사에서, 상위 10위 내에 이름을 올린 전북 지자체는 완주군이 유일하다. 완주군은 경영활동 부문과 경영성과 등 2개 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였

고, 경영자원 부문에서도 타 지역보다 우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자치연구원 관계자는 완주군의 경우 전북혁신도시와 완주산단, 과학연구단지 등에 공공기관 및 현대차 상용차 공장, KCC, LS엘트론 등 대기업이 입주하면서 인구증가, 고용기회 증대, 세수 증가, 도로정비 및 확충, 환경안전 등 지표에서 타 군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분석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무주반딧불사과, 수도권 공략으로 판매 박차

농협 양재하나로클럽 판촉행사 성황리 마쳐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이영철)은 사과 판매 확대를 위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4일에 걸쳐 서울 최대 농산물유통센터인 농협 양재하나로클럽에서 무주군과 함께 공동으로 무주반딧불사과 판촉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지속적인 조직화 교육과 재배기술 교육으로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과 구천동농협(조합장 양승욱)에 입고된 사과 물량이 작년 800톤에서 올해 1,600톤으로 크게 늘었다. 법인은 1,600톤에 사과를 판매하기 위해 11월 말부터 창동·성남·고양·수원하나로클럽을 통해 지속적인 판촉행사를 통해 300톤 출하하고 있으며, 판매처 다변화 및 국내 사과가



격 지지를 위해 베트남과 홍콩에도 수출(25톤)을 했다. 이번 판촉행사에서 30톤(1억2천만 원) 판매했으며, 행사기간 중 배너 등을 활용한 무주반딧불사과 우수성 홍보 및 현장시식회 개최를 통한 소비자 입맛 선점으로 설 명절까지 70여

톤을 추가로 목표로 판매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무주반딧불사과가 수도권 5개 매장에 본격 출하되어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출하될 수 있도록 마케팅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 생활개선회원 지역여성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한국생활개선 장수군연합회(회장 한정순)는 2016년 한 해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2017년 새로운 도약을 위해 회원들의 자신감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으로 마련했다. 한정순 생활개선회장은 “2016년 생활개선회원들이 지역 노인복지시설 종식제공 봉사 및 김장담그기 지원, 한우랑사과방 축제 참여 등 활동을 통해 지역여성리더로서의 뉘를 증명했다.”며 “2017년에는 좀 더 조직화된 모습으로 지역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트 작성하기 등 2016년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2017년 새로운 도약을 위해 회원들의 자신감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으로 마련했다. 한정순 생활개선회장은 “2016년 생활개선회원들이 지역 노인복지시설 종식제공 봉사 및 김장담그기 지원, 한우랑사과방 축제 참여 등 활동을 통해 지역여성리더로서의 뉘를 증명했다.”며 “2017년에는 좀 더 조직화된 모습으로 지역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이근상 진안부군수, 가축 방역현장 점검

진안군 이근상 부군수는 최근 AI방역 거점소독장소를 방문하여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지난 8일 전북 고창·부안 AI 발생과 이에 따른 반경3km 긴급 살처분 등 방역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 우리군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점검 차원이다. 진안군은 AI 유입차단을 위해 농가

단위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독약·생석회 8,000kg공급, 12월 중 2,000kg 추가 공급으로 농가 자율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가금농가 예찰 전담공무원제 시행, 소독취약 지역 공동방제단 소독 지원, 축산차량 거점소독장소(2개소) 운영 등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국립플리시스

무주군, 2016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완료

무주군은 올해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대상 15만 필지 중 무주읍 외 3개면 102,387필지를 변환·완료(지금까지의 변환 실적 98%에 해당)했다고 밝혔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위성측량방법으로 공통점을 측량해 변환계수를 산출하고 세계측지계를 기준해 지적공부를 변환하는 사업으로, 군의 경우 2018년까지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것을 완료하면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로 정 위치에 등록된다. 측지계(測地係, Geodetic Datum)란 곡면인 지구의 공간정보(지형·지물)의 위치와 거리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 지적·임야도 등 지적공부는 1910년 토지조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동경원점 기준인 동경측지계를 사용하고 있다. 세계측지계 변환은 지적·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경계는 변하지 않고 도면상 위치만 남동쪽으로 365m 이동되는 것으로, 권리면적·토지소유권과 그 이외의 권리관계 등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일제잔재를 청산하는 것은 물론 국가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며 “지적공부와 공간정보의 융·복합 콘텐츠 개발을 유도해 민간 공간정보산업을 활성화시키고 1인 측량도 가능해짐에 따라 소유권리 관계의 확인이 편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AI 인체감염 예방 만전

무주군은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획총괄·건강증진, 역학조사·환자관리, 정보관리, 검사팀으로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구성했으며 AI 인체감염 발생 감시와 증상 및 예방법 교육, 신고조치 안내와 가금류 축산농가 종사자 예방접종 확인, 관련 리플릿과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항바이러스제와 개인보호장비도 보유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역학조사·환자관리팀에서는 AI 발생에 대비한 별도의 통제계획을 수립해 위생 관리와 인체감염 예방조치, 살처분 참여자 사전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군 보건의료원 안미경 담당은 “아직까 지 무주에서는 AI가 발생하지 않았고 국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자는 없지만 최근 중국에서 사례가 발생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축산담당부서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AI 인체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힘써서 주민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한 무주를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박성일 완주군수, 간부회의서 “흔들림 없는 군정 추진” 강조

박성일 완주군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가결과 관련, 12일 흔들리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청원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박성일 군수는 이날 간부회의를 통해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줬다”면서 “비록 탄핵 가결이 됐지만, 우리들은 중심잡고 주어진 일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군수는 “연말연시를 맞아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항상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자는 자세로 본연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군수는 또 “대통령의 탄핵 확정 여부 및 그 시기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도 변동될 수 있다”며 “군 차원의 대선폭약사업이나 2108년도 국가예산 확보, 2017년 공약사업 발굴 및 확보 등에도 일체의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고원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학산입국
063-430-2951